

박순호본 〈현수문전〉 연구

주수민

홍익대학교 박사 후 연구원, 고전문학 전공

woowang-j@hanmail.net

- I. 머리말
- II. 박순호본에 대한 기본적 검토
- III. 박순호본의 서사적 특징과 세계 인식
- IV. 맺음말

I. 머리말

19세기 초반 무렵에 창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현수문전〉은 필사본, 세책본, 방각본, 활자본 등 현전하는 다양한 형태의 이본들을 통해 그 대중적 인기를 짐작할 수 있는 장편영웅소설이다.¹⁾ 더불어 본 작품은 우리 소설사에서는 드물게 후반부 서사의 변주를 통해 결말이 다른 다양한 이본들을 생성해낸 독특한 작품이기도 하다.²⁾ 그러한 까닭에 이본 연구는 본 작품의 개별연구에 있어 그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 왔으며,³⁾ 여러 이본들 가운데 구활자본인 ‘조선서관본’과 필사본인 ‘천리대본’ 그리고 ‘경관 65장본’ 등은 주요 연구대상으로 활용되어 왔다.⁴⁾

1) 조희웅의 이본목록에 의하면 〈현수문전〉 이본으로는 세책본을 포함한 필사본 10종과 경관본 5종 그리고 완관본 1종과 활자본 11종이 있다. 조희웅, 『고전소설 이본목록』(집문당, 1999), 833-834쪽.

2) 〈현수문전〉 이본들의 서사적 차이와 그러한 이본 생성이 확산된 배경에 대해서는 줄고를 참고하기 바란다. 줄고, 「한글 고소설 이본 확산의 일 경향과 그 의미: 〈현수문전〉을 중심으로」, 『고소설연구』 제42집(2016), 83-109쪽.

3) 주요 논의들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최범호, 「현수문전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1986); 김종철, 「玄壽文傳의 분석」, 『인문논총』 제1권 제1호(1990), 41-62쪽; 조해숙, 「〈현수문전〉 이본고: 작품구성 및 주제의 변모양상」, 『한국국어교육연구회논문집』 제49호(1993), 59-88쪽; 임채문, 「〈현수문전〉 연구」, 한국고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05); 김현정, 「〈현수문전〉의 이본 특징과 수용 양상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04); 줄고, 「〈현수문전〉 이본 연구」, 『정신문화연구』 제37권 제1호(2014), 227-255쪽.

4) 관련 연구 결과들을 간략하게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구활자본 및 세책본 계열의 서사를 대표하는 ‘조선서관본’은 ‘송→여진→원’으로의 연속적인 왕조교체를 통해 대체로 봉건체제에 대한 비판의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체제에 대한 민중의 갈망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되어 왔다. 김종철(1990), 위의 논문, 50-52쪽; 조해숙(1993), 위의 논문, 84-85쪽; 김수봉, 「현수문전의 영웅소설적 위상」, 『한국문학논총』 제14호(1993), 189-195쪽; 김현정(2004), 위의 논문, 50-54쪽; 임채문(2005), 위의 논문, 39-44쪽. 또한, ‘송→여진’으로의 왕조교체만을 다루고 있는 필사본인 ‘천리대본’은 구활자본계열에 근접한 의식을 보이면서도 봉건질서의 급진적 붕괴에 대한 서사적 이질감을 완화하고자 한 서술의식이 표출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김종철(1990), 위의 논문, 61-62쪽; 조해숙(1993), 위의 논문, 85쪽; 임채문(2005), 위의 논문, 39-44쪽. 마지막으로, ‘경관 65장본’은 끝내 송조가 유지되는 결말을 중심으로 군신관계의 회복을 통해 중세 봉건체제에 대한 독자들의 기대심리를 충족하거나 혹은 ‘충절의식’을 선양코자한 것으로 읽혔다. 김종철(1990), 위의 논문, 53-55쪽; 최범호(1986), 위의 논문, 79쪽; 조해숙(1993), 위의 논문, 84-85쪽; 김현정(2004), 위의 논문, 46-49쪽; 임채문(2005), 위의 논문, 39-44쪽. 그러나 최근 필자는 선본과의 관련 속에서 경관본의 서사를 논하며 본 이본이 표면적으로는 이민족에 의한 왕조교체를 지양하는 가운데 송조의 존립을 지향하고 있으나 그 이면에는 송조에 대한 절대성을 상실한 작자의식을 반영하고 있어 당대 존명의식이

한편, 박순호 소장 필사본은 본 작품에 대한 초기 연구에서부터 거론되어 왔으나 무엇보다 서사가 완결되지 않은 결본으로 치부된 까닭에 본격적인 논의의 대상에서는 제외되어 왔다. 그러나 박순호본을 면밀히 검토해 보건대, 본 이본은 선본(先本·善本)과는 상이한 서사적 결말을 맺고 있을 뿐 아니라, 현전하는 〈현수문전〉 이본들 가운데 단연 독특한 시각을 표출하고 있었다. 이러한 양상은 본 이본이 선본의 서사에 대한 ‘이의 제기’를 목적으로 생성되었을 가능성을 내포하는 것이라 하겠다.⁵⁾ 더불어 필자가 검토한 결과, 본 이본은 결본이기보다는 그 자체로서 서사가 종결되는 완본일 가능성이 높았다.

이에 본고에서는 먼저 박순호본이 결본으로 치부되었던 원인들을 중심으로 본 이본의 완본 여부를 재론하고, 서술적 특징에 대한 검토를 통해 박순호본 서술자의 대강을 살펴봄으로써 박순호본 연구의 근거를 마련코자 한다. 더불어 선행연구를 통해 선본(善本)이자 선본(先本)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 ‘홍윤표본’⁶⁾과의 서사 비교 및 한문 필사기를 중심으로 박순호본의 서사적 특징과 세계 인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고의 논의를 통해 박순호본 〈현수문전〉의 의미와 가치가 재조명되기를 기대한다.

시의성을 상실해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관념적으로 대명리리를 추수하던 조선 후기의 대외인식을 반영하고 있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참고, 「〈현수문전〉 경판본의 표면적 지향과 이면적 실체」, 『한국고전연구』 제41집(2018), 261-289쪽. 한편, 주형에는 세책본인 ‘동양문고본’을 대상으로 논의를 전개하였으며, 김용기는 활자본의 서사를 중심으로 영웅소설의 왕조교체 방식을 연구하기도 했다. 주형에, 「동양문고본 〈현수문전〉의 서사적 특징과 의미」, 『열상고전연구』 제15집(2002), 221-249쪽; 김용기, 「왕조교체형 영웅소설의 왕조교체 방식 연구」, 『국어국문학』 제153호(2009), 126-130쪽.

- 5) 정충권은 서사 문학에 있어 결말이란 갈등이 해소되고 더 이상의 사건 전개를 필요로 하지 않는 상황을 말하는 것으로, 결말의 변주는 모든 독자로부터 공감을 얻을 만한 결말이 마련되지 않은 까닭에 나타나며 주요 원인으로는 ‘서사적 의문 해소’, ‘특정 인물 편들기’, ‘논쟁적 이의 제기’ 등이 있다. 정충권, 『판소리 문학의 비평과 감상』(월인, 2016), 281-284쪽.
- 6) 필자는 총 16종의 이본 검토를 통해 세책본 및 구활자본 등에 나타난 연속적인 왕조교체 서사가 선본(先本)의 서사임을 밝히는 가운데, 이중 가장 내용이 풍성하고 개연성 있는 서사 전개를 보이고 있는 홍윤표 소장 필사본(4권 4책)을 선본(善本)으로 비정하는 가운데, 본 이본이 현전 이본 중 가장 이른 시기에 산출되었을 가능성을 논한 바 있다. 참고, 앞의 연구(2014), 241-249쪽.

II. 박순호본에 대한 기본적 검토⁷⁾

1. 완본 여부

총 64장으로 구성된 박순호본은 매 면 12행, 각 행은 24-37자로 이루어진 국문 필사본으로, 대략 선본으로 비정된 홍윤표본(4권4책/각권 49·48·49·45장)의 1·2권에 해당하는 사건들로 구성되어 있다. 다시 말해, 홍윤표본이 수문의 초본 고생 및 출장입상을 다룬 전반부와 위왕 현수문이 위국에 정착한 이후의 사건들을 중심으로 한 후반부로 구성되어 있다면, 박순호본의 서시는 수문이 위국에 정착하면서 종결된다.⁸⁾ 그리고 이러한 양상은 다음의 두 가지 사항과 결부되며 박순호본을 결본으로 치부하게 했다.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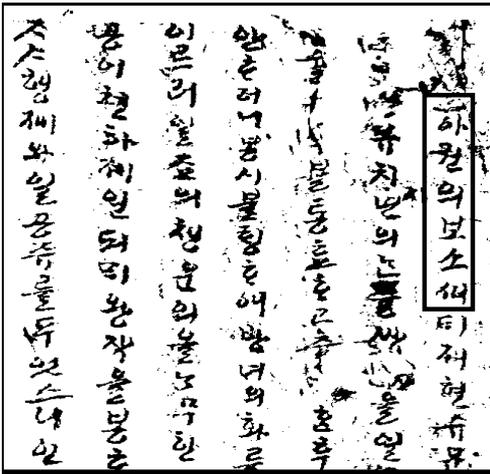


그림1- 박순호본 마지막장

- 7) II-2의 '서술적 특징'은 일반적으로 III-1의 '서사적 특징'과 아울러 살피는 것이 타당하나 본고에서는 서술상의 특징을 통해 박순호본 필사자의 대강을 검토함으로써 박순호본 연구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까닭에 본장에서 완본 여부와 함께 살피고자 했다. 더불어 II장의 논의는 1986년 월촌문헌연구소에서 편한 『한글 필사본고소설자료총서 49』에 영인된 박순호 소장 필사본과 홍윤표 교수 소장 필사본을 텍스트로 하였으며, 인용문에는 각각 영인본의 쪽수와 필사본의 장수를 제시하였다.
- 8) 더불어 박순호본의 서시는 경판(65장본(상·중·하)을 기준으로 하는 중권의 후반부에서, 구활자본인 조선서관본(총23회)을 기준으로 하는 12회에서 종결되어 여타의 이본과도 분량 면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하나는, 다음과 같이 박순호본의 마지막장에 하권의 존재를 명시적으로 보여주는 문장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그림1의 □에 들어 있는 “하권의 보소서”라는 문장은 흥윤표본의 전반부에 해당하는 사건들만으로 구성된 박순호본을 ‘하권’이 유실된 결본으로 보는 데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다.

다른 하나는, 다음의 인용문에서와 같이 본 이본에서 ‘계양춘’과 ‘노양춘’의 이름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적의 양평공의 여주 계양춘과 약당의 여식 노양춘이 서로 도망하여 …… “우리 인물이 과이 추비치 아나흔직 아모쪼록 위왕의 신첩을 구하여 함피 슈문을 섬기면 위왕은 쇼년이라 호식홀 거시니 우리 양인 중의 흥느히는 위왕을 섬길제 그 썩을 당하여 부모의 구슈를 보복하고 죽어 천하의 도라가 부모를 디면흔련이와 그러치 아니하면 하면목으로 세상의 머리를 드러 몸을 용납하리오” 하며 양녀가 약속 뇌정하고 도원결의하여 위국으로 간이라.(329-330쪽)

위의 인용문은 수문에게 목숨을 잃은 서번의 모사인 양평공의 딸 계양춘과 서번의 장수 약대의 딸 노양춘이 위왕 현수문에 대한 복수를 다짐하고 위국으로 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 두 명의 양춘은 흥윤표본을 비롯한 여타의 이본에서 송조의 위기와 관련된 주요 사건들에 연루되어 있어 서사적 비중이 적지 않은 인물들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박순호본의 이후 서사에서 두 명의 양춘이 더 이상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한 까닭에 선행연구에서는 박순호본 역시 여타의 이본들과 같이 두 명의 양춘이 등장하는 일련의 사건들이 전개되는 하권이 존재하는 이본일 것이라 생각한 것이다.

그런데 이상의 두 가지를 근거로 박순호본을 결본으로 치부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이유에서 무리가 따른다.

먼저, “하권의 보소서”에서의 ‘하권’의 존재는 박순호본 자체와는 무관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 본 문장은 전장에 나타난 “위국 상왕의 시호를

9) 〈현수문전〉 연구의 선편을 잡은 김종철은 “서술된 내용 자체가 방각본이나 구할자본의 절반 정도”가 된다는 점과 더불어 박순호본의 종결부에 “(판독불능)……, 하권의 보소서”라는 문장이 나타나며 수문에게 복수를 다짐하는 계양춘과 노양춘이 이후의 서사에서 등장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박순호본을 “하권이 존재함이 분명”한 결본으로 보았다. 더불어 이러한 김종철의 견해는 조해숙 등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박순호본은 개별 연구의 대상에서 자연스럽게 배제되었다. 김종철(1990), 앞의 논문, 44-45쪽; 조해숙(1993), 앞의 논문, 63-64쪽; 임채문(2005), 앞의 논문, 12-13쪽.

수송호되 충무왕이라 호여 계시니 …… 왕이 성호를 다호야 예로써
안장호고 원능이라 충하다 여”에 이어 그림1과 같이 해독이 불가한
두세 글자 뒤에 나타난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하권’이 지시하는 바는
기실 명확하지 않을 뿐 아니라,¹⁰⁾ 무엇보다 본 문장의 뒤에는 다음과
같은 서술이 이어지고 있다.

되저 현수문은 부귀공명 슈복 다남즈호되 인□□□ 유치지년의는 □□□을 일호
우연 성불을 만느 …… 석공의 후은으로 위금호여 일신이 평안호더니 봉시 불형호여
방녀의 화를 피호올제 신검으로 속장 황성의 이르러 일조의 청운의 홀느 무한 영귀호다
가 반적 양국을 토평호여 공이 천하제일되미 왕작을 봉호여 부모 안전의 변화호고
검호여 왕즈 스 형제와 일 공주를 두었스니 인봉구룡은 위덕이 구비호며 공주는
송 티즈비 되었스니 그 영요함이 엇호호요? 진실노 장호도다! 맛당히 송독함.(342쪽)

위의 인용문은 박순호본의 종결부에 제시된 것으로 현수문의 일생을
요약·정리하는 가운데 그의 삶에 대한 필사자의 논평을 담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은 주지하듯 영웅소설의 종결부에서 흔하게 나타나는
전형적인 서술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본 인용문의 존재는 본
작품의 서사가 하권으로 이어지기보다는 그 자체로서 종결되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여기서의 ‘하권’은 가령, 필사 저본의 하권과 같이
박순호본 자체의 서사와는 무관한 것을 가리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둘째, 선본의 서사에 나타난 두 명의 양춘의 역할과 박순호본의 결말부
에 제시된 현수문의 행적을 고려했을 때, 단지 두 사람의 이름이 등장한다
는 것만으로 하권의 존재를 상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선본의 서사에서
두 명의 양춘이 등장하는 것은 이들의 부친이 수문에게 목숨을 잃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이들의 존재 이유는 수문에 대한 복수의 성취에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흥운표본을 비롯한 선본(先本) 계열의 이본들에서

10) 더불어 본 연구자는 박순호본의 필체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살펴보면, “하권의 보스
서”가 오독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림1에 나타난 ‘현수문’의 ‘현’이나
‘충호호고’의 ‘호’, ‘호’ 및 ‘불형’의 ‘형’ 등을 비롯한 박순호본에 나타난 ‘호’의 모양이
‘하권’의 ‘하’와는 명확한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박순호본에 나타난 ‘호’를
‘호’와 ‘호’로 나누었을 때, ‘호’는 공통적으로 ‘호’와 자체의 너비가 같거나 그보다
짧은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하권’의 ‘하’의 ‘호’는 예외적으로 ‘호’의 자체가 ‘호’보다
훨씬 긴 모습을 보이고 있어, ‘호’이 기실 ‘호’와는 별개인 앞글자의 일부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가능성은 필사 습관만을 고려한 추정인 까닭에 각주를 통해
제시하였다.

이들과 관련된 사건들은 모두 위왕 현수문의 생전에 발생한다.¹¹⁾ 그러나 박순호본에서 현수문은 위국에 정착하여 선치하다 태자에게 선위 후 향년 팔십이 되는 ‘세(歲) 무오(戊午) 동(冬) 십월(十月) 념간(念間)’에 홍(薨)한다.¹²⁾ 이러한 양상은 현수문에 대한 복수를 목적으로 벌어지는 두 명의 양춘과 관련된 사건들이 박순호본에서 전개될 여지가 없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박순호본에 두 명의 양춘이 등장하는 것은 하권의 존재를 상징할 수 있는 근거이기보다는 오히려 본 이본이 이들의 활약이 담긴 이본을 저본으로 하여 생성된 까닭에 나타나는 일종의 ‘착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셋째, 무엇보다 박순호본의 내제는 “현수문전 권지단”이다. 고소설의 ‘내제(內題)’란 말 그대로 책의 이름을 같이 아닌 속표지나 본문의 첫머리 따위에 적어 넣은 것을 말한다. 더불어 내제에는 “권지일”이나 “권지이”와 같이 해당 책의 순서를 알 수 있는 정보가 함께 제시되는 것이 보통이며, “권지단”이란 해당 책이 단권(單券), 즉 한 권으로 구성되었음을 말한다. 따라서 서사가 종결될 뿐 아니라, 내제를 통해 스스로를 “권지단”이라 밝히고 있는 박순호본을 하권이 유실된 결본으로 보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2. 서술적 특징

박순호본은 홍윤표본을 비롯한 여타의 〈현수문전〉 이본들과 비교했을 때 다음과 같은 서술상의 특징들을 보인다.

첫째, 고어 및 고사를 활용하는 가운데 한자어의 사용이 상당히 빈번하게 나타난다.

11) 홍윤표본 및 세책본, 구활자본 등에서 위국에 갔다 수문에게 쫓겨난 두 명의 양춘은 먼저 진번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진번에서 노양춘은 후궁이 되어 진번왕을 충동하여 송실을 침범하는데, 이 사건은 수문의 출정으로 진압되며 이때 노양춘은 목숨을 잃는다. 그리고 간신히 목숨을 건진 계양춘은 남북하고 여진으로 도피하던 중 진강도인을 만나 황후가 될 것이라는 예언을 듣고 여진에 들어가 왕의 후궁이 되어 마찬가지로 왕을 충동하여 송조를 침범하게 한다. 그러나 수문은 신 천자와의 갈등으로 이때 결국은 송실을 돕지 않는데 이로써 송실은 여진에게 멸망하고 계양춘은 진강도인이 예언한 바와 같이 천자국의 황후가 된다.

12) “왕이 연노름으로 세즈의 위를 전하니 세즈 마지못하여 즉위 치국할시 부친과 가치하니 만방의 인성이 즈” 허더라. …… 미귀의 또 상황이 흥하니 향년이 팔십이오 세 무오 동 십월 념간이라.” 340-341쪽.

【홍윤표본】 석공이 촌언을 듣고 탄왈 “자고로 영웅호걸이 초년의 곤치 아니 니 업다.”하고 닐오되 “너 그덕을 덕하여 혼 말을 니리고져 호느니 용납하라?”…….(권지알-17b)

【박순호본】 참정이 왈 “에부텨 영웅이 초분은 험하다가 누종은 크게 되느니 ㉠장양 이 역스를 인하여 오퇴어박낭스증할제 한스될 줄 엇지 괴약하며 한신이 표모을 조츠 괴식이회음영하할제 초왕할 줄 누가 의논호리오?” 슈문이 왈 “㉡옛글의 호였시 되 ‘궁달난 슈분이오 공명즈 유사라 호니 지금 비록 빈천호느 후일 스업을 엇지 아리잇가?”(236쪽)

위는 홍윤표본과 박순호본에서 일광대사의 문하를 떠나 유리결석하던 현수문을 만난 석참정이 수문의 내력과 사연을 들은 직후에 한 말을 각각 인용한 것이다. 인용문을 통해 알 수 있듯, 홍윤표본의 석참정은 영웅호걸의 초년 불운이 일반적인 것임을 간략하게 말하고 있다. 반면, 박순호본의 석참정은 ㉠과 같이 한나라 장량(張良: BC 250-BC 186 추정)과 한신(韓信: BC 231-BC 196 추정)의 고사를 들어 수문의 고단한 처지를 위로하고 있다. 더불어 수문은 ㉡에서처럼 ‘궁달(窮達)은 수분(數分)이요, 공명자유시(功名者有時)’라는 고어를 들어 자신의 앞날을 낙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데, 이러한 양상은 박순호본에서 상당히 빈번하게 나타난다.¹³⁾

둘째, 개별 사건에 대한 서술이 구체적일 뿐 아니라 주변 경관과 부수적인 상황 묘사 역시 상세하다. 일례로, 서사 초반 화주승에게 시주 후 수문이 잉태되는 과정을 담고 있는 부분을 홍윤표본과 비교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홍윤표본】 [노승이] 비사하직호거늘 사랑이 답네호여 보니고 닌당의 드러가 부인을 덕하여 말을 니르고 슬허호더니 과연 □□절의 부인이 홀연 잉태호여 십삭이 당호릭…….(권지알-2a)

【박순호본】 [현택진이] 무슈이 칭스호고 닌당의 드러가니 도화, 리화는 난만호여 구십소광을 자랑호고 녹음방초는 번울호여 삼천디계의 가득하다. 빅운유슈와 청송 녹죽은 사사가경 무환호되 하물며 두건이 실패울제 월식이 만정이라. 출홍을 못이기

13) 한자어 및 고어의 사용과 관련해서는 III장에서 살필 한문 필사기 및 그와 관련된 내용들을 통해서도 충분히 살펴볼 수 있다.

여 부인으로 더부러 원월누에 올는 청풍을 더하여 조요한 명월을 회롱하며 선스 부처의 말씀하시고 슈비쥬로 부〃 상권동낙하여 이날 밤 만심환회회사 놀기를 파하고 도라왔더니 과연 그달보텀 티기 잇서 근어십식이라.(220쪽)

위 인용문을 통해 알 수 있듯, 흥윤표본에는 화주승을 배운 이후 현택진과 장씨 부인의 만남과 그로 인한 수문의 잉태가 굳더디기 없이 간략하게 서술된다.¹⁴⁾ 반면, 박순호본에는 화주승을 배운 현택진이 장씨를 만나기 위해 찾은 내당의 풍경과 정취가 상세히 묘사되는 가운데,¹⁵⁾ 수문의 잉태 과정이 비교적 구체적으로 서술되어 있다. 이러한 양상은 박순호본의 곳곳에서 발견되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본 이본의 서사를 풍성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¹⁶⁾

셋째, 하나의 사건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기에 앞서 관련 내용을 요약한 문장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 특이하게도 여기에는 서술자의 감정이 함께 제시된 경우가 많다.

(가) ㉔각설. 장부인이 난중의 슈문을 이별하고 가택이 실화하되 향할 비을 모로다가 사랑을 츠즈 서천의 이르러 비소의셔 동고하니 부인의 참척흔 경상과 사랑의 원억흔

14) 박순호본의 서술은 선본인 흥윤표본 뿐 아니라, 다음과 같이 경판본이나 천리대본에 비해서도 상세하다.

【경판 66장본】 [노승이] 하직하고 가거늘 사랑이 너당의 드러가 노승의 슈말을 니르고 서로 위로하더니 츠년 츠의 부인이 티기 이시미 사랑이 대회하여 십삭을 기다리더니……. 권지상-2a.

【천리대본】 [현택진이] 무슈히 스투하고 너당의 드러가 티스의 흥든 말을 설화하고 춘경을 부치더니 과연 그 달부터 티기 잇서 십삭이 당하니……. 권지상-2b-3a.

15) 풍광에 대한 묘사는 특히 상세한 양상을 보이는데, 다음은 모친과 이산한 수문이 일광 대사의 손에 이끌려 자운동에 들어가는 상황을 담고 있는 부분을 선본과 비교하여 제시한 것이다.

【흥윤표본】 노인을 썩라 산곡으로 흥하더니 만첩산중에 드러가니 슈간 정지 이시되 인적은 업고 다만 청동하나히 나화 맛거늘 슈문이 썩라 드러가 보니 벽상의 칙 하나와 큰 환도 하나히 이시되……. 권지일-13a.

【박순호본】 노인을 썩라 산곡으로 드러가며 눈을 드러 보니 층암절벽이 화병가치 들너는디 청봉벽운을 너머 봉정산을 지니 슈정산의 다다르니 사망의 인적 멀하고 일경이 슈형통이라. 석상입간으로 근〃이 드러가니 춘광이 가상이로다. 온갖 화초 피었는디 왜철죽, 진달리와 만드람, 봉선화, 빅모란, 홍모란 등은 풍경이 찬란하고 …… 방중의 노인 거션 일기 옥소와 팔척 장검이 걸너찌며 만권 슻작을 썩아쓰니 방가위 별 세건곤일너라. 228-229쪽.

16) 박순호본은 여타 이본들의 전반부에 해당하는 사건들로 구성되어 있으나 개개의 사건을 전개함에 있어서는 대체로 여타의 이본들보다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는데 가령, 박순호본이 총 64장으로 구성되는데 비해 경판본이 총 66장으로 구성되었다는 사실을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정신을 엇지 다 이르리오? 무정이 세월을 보닛더라. 슬프다! ㉔잇썸 부인 장씨 시비 츠섬을 다리고 혼〃 전진하야 무량도를 츠즈가니……. (231쪽)

(나) ㉔각설. 평싱 팔즈의 일씨 곤익을 면키 어렵도다! 현슈문이 입산 슈학 혼 지 팔년의 비로소 출세취쳐하니 신히년 출간이라. ㉕산문을 써는 정처 업시 가다가 소흥부로 지날 식 바위 우의 잠간 몸을 의지하야 누엇더니……. (232쪽)

(가)와 (나)의 ㉔, ㉕은 ㉔, ㉕에서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사건들의 내용을 앞서 요약하여 제시한 문장들로, 흡사 회장체 소설에 나타나는 회의 제목과 같은 역할을 한다.¹⁷⁾ 그런데 특이한 것은 해당 문장 안에 “슬프다”나 “평싱 팔즈의 일씨 곤익을 면키 어렵도다”와 같이 관련 사건에 대한 서술자의 감정이나 생각들이 함께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양상은 대부분의 장회 제목에서 서술자의 감정이 배제되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둘 때 특징적이라 할 수 있다.¹⁸⁾

마지막으로, 곳곳에서 교열·교정의 흔적들을 찾아볼 수 있으며 몇몇 단어에 대해서는 우측 공백이나 바로 아래에 그에 대한 보충 설명을 부기하고 있다.

(다) 성은 현이오 명은 퉁진이니 승상 현기의 아달이라. 누세 골경 주석지신으로게히 년의 심히다 교목지의 극중하고……. (215쪽)

(라) 부인은 비록 슈문을 이럿시느 사랑을 만닛시니 일신이 반석갓흔지라. 부〃 서로 붓들고 퉁일 슈문을 스망히여 오미히며[불망] 주야로 침석이 불안히야 …….(232쪽)

(마) 그놈이[방덕] 퉁락히여 “그리히리이다.” 히고 외당의 나와 히 지기를 기다리더라. 기특홀스 석침[소더]의 이복동심이 창 밧게서 …… 부친 봉셔를 써여보니

17) 이에 비해 홍윤표본은 별다른 사건 요약이나 해당 사건에 대한 서술자의 감정 제시 없이 곧바로 사건을 전개하는 양상을 보인다. 일례로, 예문 (가)와 관련이 있는 홍윤표본의 서사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츠시 현공이 적소의 가 슈간초옥을 어더 주야로 은스만 바라고 축원히더니 천만의외 에 부인 장씨 츠자 니르니 반가온 등 디경히여 말을 못히고 서로 붓들고 퉁곡하다 가…….” 권지일-14b

18) 가령, 조선서관본에서 ㉔, ㉕은 각각 제3회 “적소 중에 장부인이 와서 의지히고 청계상에서 석광위 궁아을 거두다”와 제4회 “석공이 병드러 황천에 도라가고 수문이 밧갈다가 세 가지 보비를 웃다”로 제시되어 있어 해당 사건에 대한 서술자의 감정이 일체 배제된 양상을 보인다.

(다), (라)는 좌측 여백을 활용하여 해당 부분과 관련된 정보나 빠진 단어를 부기한 예를 인용한 것이다. (다)의 경우, “누세 골경 주석지신”의 좌측 여백에 “계희년의 싱ㅎ다”라는 문장을 부기함으로써 현택진의 출생 정보를 더하고 있으며, (라)는 “오미ㅎ며” 옆에 “불망”을 부기하여 “오미ㅎ며”가 본래 “오미불망ㅎ며”임을 밝히고 있다. 더불어 (마)는 협주(夾註)와 같이 본문보다 작은 글자로 특정 단어의 하단에 관련 정보를 보충해 놓은 것으로, “그놈”, “석침”, “봉서……호옛시되”의 하단에는 각각 “방덕”, “소녀의 이복동생”, “봉서는 석침정 임종 시 유희”이라는 말이 작은 글씨로 부기되어 있다. 이러한 특징들은 비록 고소설 일반에서 드물게 나타나는 것은 아닐지라도, 〈현수문전〉의 이본들 가운데서는 유독 박순호본에서만 두드러지게 발견되는 특징들이라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핀 바와 같이, 박순호본은 하권이 유실된 결본이기보다는 그 자체로서 서사가 종결되는 완본일 가능성이 높았다. 더불어 박순호본에 나타난 서술상의 특징들은 본 이본이 한문 지식이 있는 필사자에 의해 작품의 내용과 더불어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완성된 것임을 짐작케 한다. 이러한 양상은 박순호본이 완본임과 더불어 단순히 선본의 서사를 조기 종결한 것이 아니라, 특정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의도적인 서사 변개를 도모한 이본일 가능성을 보여준다.

Ⅲ. 박순호본의 서사적 특징과 세계 인식

1. ‘체제지향형 영웅서사’로의 회귀

본격적인 논의를 전개하기에 앞서 먼저 박순호본의 서사 단락을 제시하면 표1과 같다.

표1-박순호본의 서사 단락

㉑	이부시랑 헌택진과 장씨 부부가 천축사 화주승에게 시주 후 현수문을 낳다.
㉒	수문이 5세 되던 해에 현시랑이 황숙 연평왕의 역모에 연루되어 서천 무량도에 유배되다.
㉓	울남의 중원 침입으로 수문과 모친이 이산하다.
㉔	수문이 천축국 지령사의 일광대사에게 구제되어 남악산 자운동에서 8년간 무예와 병법을 익히고 옥저와 세 개의 봉서를 받은 후 하산하다.
㉕	하산 후 유리걸식하던 수문이 우연히 석참정에게 구제되어 이후 참정의 망치 소생인 운혜와 혼인하다.
㉖	석참정이 기세하자 운혜의 계모 방씨의 극심한 박대를 받던 수문이 일광대사의 첫 번째 봉서를 개탁하고 지시에 따라 운혜를 두고 홀로 집을 떠나다.
㉗	황성으로 가던 길에 금산사 칠보암의 화주승을 만난 수문이 운혜가 노자로 준 은자 백냥을 시주하고, 이후 운혜는 방씨가 자신을 방덕에게 개가시키려하자 석참정의 유훈에 따라 차비 채섬과 함께 집을 나와 금산사 칠보암에 거하다.
㉘	황성에 도달한 수문이 현시랑의 노복이었던 차복을 만나고 그의 도움으로 과거를 치러 장원급제하여 춘방 금문직사 학림학사에 제수되다.
㉙	울남이 다시 반란을 도모할 조짐을 보이자 수문이 天使로 파견되어 왕회를 끼치고 돌아오다.
㉚	울남에서 돌아오던 중 수문이 흉년으로 굶주려 반하는 형주 일대의 백성들을 순무하고 금산사에 들러 아내 석씨와 재회한 뒤 황성으로 돌아와 문현각 태학사가 되다.
㉛	모사 심양공과 대장군 우이대를 앞세운 토번이 반란을 일으키자 수문은 대원수가 되어 이들을 진압하고 토번 왕을 생금하다.
㉜	토번을 진압하는 사이 모사 양평공과 대장군 약대를 앞세운 서번이 황성을 침범하여 천자가 위태로워지자 수문은 황급히 달려가 황제를 구하고 난을 진압하다.
㉝	서번을 진압한 뒤 서천 백성을 안무하던 수문이 일광대사의 두 번째 봉서를 개탁하고 옥중에 있던 모친 장씨와 재회하고 우승상 계림후 위국공에 봉해지다.
㉞	모친과 황성으로 돌아가던 수문은 금릉 벽계촌에 들러 방씨를 대신하여 살인죄로 옥에 갇혀 있는 운혜의 동생 석침을 구하고 방씨와 재회하다.
㉟	모친과 함께 계양 땅에 이른 수문이 일광대사의 세 번째 봉서에 지시된 바와 같이 해배되어 계양태수로 있던 부친과 상봉하고 서천·한중 땅을 할양받고 위왕이 되다.
㊱	서번의 모사 양평공의 딸 계양춘과 대장군 약대의 딸 노양춘이 위왕에 대한 복수를 다짐하며 위국으로 향하다.
㊲	위왕 현수문과 왕비 석씨가 벽계촌에 들러 석참정 묘소에 소분하고 방씨 및 석침과 재회한 뒤 위국으로 떠나다.
㊳	위국에 정착하여 선정을 베풀던 현수문이 연만하여 세자에게 선위 후 태상왕이 되어 향년 팔십에 기세하고, 이에 선제 사후 천위에 오른 신 천자가 수문에게 '충무왕'이란 시호를 내리다.

표1의 ㉑-㉛까지의 사건 전개는 비록 미시적인 차이는 있을지라도 전체적으로 홍윤표본의 서사적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양상을 보인다. 그러나 박순호본의 결말부라 할 수 있는 ㉜은 홍윤표본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다음은 ㉛에 이어지는 홍윤표본의 서사 단락을 정리하여 제시한 것이다.

표2- 홍윤표본의 후반부 서사 단락

①	위왕 현수문이 위국 정착 후 복수하러 온 두 명의 양춘을 내치다.
②	진번왕의 후궁이 된 약대의 딸 노양춘의 총동으로 진반이 송을 공격하자 수문이 이를 막아내다.
③	송 천자가 붕하고 신 천자가 재위에 오르다.
④	신 천자가 간신들의 말을 듣고 수문과 위국을 탄압하다.
⑤	홍노가 송을 침범하자 선제를 생각하여 수문이 한 번 더 송실을 구하다.
⑥	여진왕의 후궁이 된 계양춘의 총동으로 여진이 송을 침범하고 송조가 멸망하다.
⑦	수문 사후 그 아들 현침이 엄정산 도인 밑에서 수학 후 몽골왕 흠필렬과 의기투합하여 원나라를 건국하고 천정으로 원의 부마가 되다.

표1의 ①과 표2를 통해 알 수 있듯, 박순호본이 위왕 현수문이 영화로운 만년을 보내다 기세하는 결말을 맺는다면 홍윤표본에는 위국 정착 이후 신 천자와 수문의 갈등 및 송조의 멸망과 여진의 건국 그리고 이후 수문의 아들 현침이 주도하는 원나라의 건국 서사가 이어진다. 따라서 홍윤표본을 중심으로 박순호본의 서사적 특징을 정리하자면 ‘왕조교체 서사의 부재’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박순호본은 이러한 결말을 위해 현수문만 흥하게 한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이 홍윤표본에서 무도(無道)함의 극단을 보여주는 신 천자를 전혀 다른 인물로 바꾸어 놓기도 했다.

【홍윤표본】 황숙 등이 산중의 피혁였다가 천지 봉호시물 듯고 모다 드러와 천자를 도으나 교언으로 천자를 달녀여 간신이 되니 천지 부왕의 유교를 이즈시고 간인의 교언을 미드시고 현신을 의심하시니…….(권지삼-26a)

【박순호본】 신황제 원너 위국 상왕을 부형과 골육갓치 녀이며 선제 계측을 잊지 아니호야 고금치란 세덕홍망과 진현원간 세스일의를 먼저 알게 호며 스승을 삼아 호츨 ‘등부’라 호고 항상 연노호시멸 앓기시다가…….(341쪽)

위는 각각 홍윤표본과 박순호본에서 신 천자의 인물형상이 단적으로 드러난 부분을 제시한 것이다. 인용문을 통해 알 수 있듯, 홍윤표본의 신 천자는 선제의 유교를 저버리고 간신들을 가까이하며 위왕을 비롯한 현신들을 배척하는 암군(暗君)의 면모를 보인다.¹⁹⁾ 반면, 박순호본의

19) 홍윤표본을 비롯한 세책본 및 구활자본에 등장하는 신 천자는 선제가 수문에게 할양한 땅을 환수하기 위해 자신의 스승이기도 했던 수문의 둘째 아들 현담을 죽여 ‘짓’을

신 천자는 선제의 유훈을 따르는 성군의 형상을 하고 있다. 이러한 신 천자의 변화한 인물형상은 결과적으로 신 천자와 수문의 대립에서 발생하는 왕조교체와 관련된 일련의 사건들이 전개될 가능성을 원천봉쇄해 버린다. 더불어 흥윤표본에서 수문 사후 몽골왕 흘필렬을 도와 원나라를 창업하고 기왕이 되는 수문의 아들 현침은 박순호본에서는 그 이름조차 나타나지 않는다.²⁰⁾

이러한 양상은 박순호본이 송조의 멸망은 물론 차세대인 현침이 주도하는 원나라 건국 서사 자체를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박순호본은 대개의 영웅소설 작품들과 같이 주인공의 활약이 배경 왕조의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는 ‘체제지향형 영웅서사’로 회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박순호본의 서사는 영웅소설의 일반적인 서사적 경향에는 부합할지 모르나,²¹⁾ 고소설 이본들의 일반적 특성을 고려할 때 〈현수문전〉이라는 하나의 작품 안에서는 상당히 이례적인 서사 구성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²²⁾

2. 유교적 인식 속에 나타난 ‘화이관(華夷觀)’

박순호본은 현수문이 위국에 정착한 후 기세하는 결말을 맺음으로써

답아 위국으로 보내며, 주변국과 연합하여 위국을 공격하다 수문에게 대패한다. 그리고 결국 여진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충신 육수부와 함께 현수에 빠져죽는 비참한 최후를 맞는다.

- 20) 흥윤표본에서 현침은 수문의 다섯 번째 아들로 수문 사후 엄정산 도인 밑에서 수학 후 천명에 의해 몽골왕 흘필렬을 도와 원나라를 건국하고 기왕이 된 뒤 天定으로 원의 부마까지 되는 인물로 나타난다. 한편, 경판본의 석침은 위왕 사후 왕위에 올라 신 천자의 탄압을 받으면서도 지극한 충심으로 결국은 신 천자를 개과하게 만드는 인물로 등장한다.
- 21) 안기수는 영웅소설 일반을 논하는 자리에서 영웅의 탄생과 활약은 필연적으로 외침이나 간신의 횡포와 같은 국가적 위기와 밀접한 관련을 갖게 되며, 영웅소설의 주인공은 한 집단의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는 집단 전체의 이익과 관련이 있다고 보았다. 안기수, 『영웅소설의 수용과 변화』(보고사, 2004), 160-163쪽.
- 22) 고소설 이본들은 대체로 서사적 유사성이 강한 양상을 보인다. 일례로, 조희웅은 고소설 이본들에서 내용상의 차이가 발견되지 않는다는 통설을 확인하기 위해 한국고전소설 목록에 있는 858종의 작품들 가운데 〈춘향전〉 다음으로 많은 이본들(총 295종)이 현전하는 〈조웅전〉의 이본고를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 본 작품의 이본들 가운데 내용상 독립 이본으로 내세울 만한 것이 없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조희웅, 「〈조웅전〉 異本攷 및 校注補」, 『어문학논총』 제12집(1993), 41-58쪽. 이러한 결과는 대체로 고소설 이본들이 서사 골격을 뒤흔들만한 서사 변개를 보이지 않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 하겠다.

연속적인 왕조교체가 나타나는 흥윤표본과는 달리 전형적인 체제지향형 영웅소설로 회귀하는 양상을 보였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 본 이본이 현수문의 죽음을 통해 단순히 서사를 조기 종결한 것이 아니라, 해당 서사 내부에서도 다양한 변모를 도모하고 있다는 것이다. 먼저, 박순호본 서술자의 서사 변개 의식이 상당부분 녹아있는 한문 필사기를 살펴보고자 한다.²³⁾

古語云 ①萬事分已定 禍福自己求 觀此之書 明知一世之榮枯 皆由於我不由於人 子曰 ②素富貴行乎富貴 素貧賤行乎貧賤 若玄公者眞近於聖矣 然既有天材超俗 又得賢師神鑑 初酸鼻於妖魔之物 忽開眼於造化之柄 年少青春 第一金榜 出將入相 建功爵王 顯寵百代 卓譽千古 固非人力所致 此誠分內之事 有數存焉而已.²⁴⁾(342쪽)

위는 박순호본의 마지막장에 국문 필사기에 이어 서술된 한문 필사기를 인용한 것으로, 이를 통해 엿볼 수 있는 박순호본의 서술의식은 크게 다음의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①의 “萬事分已定 禍福自己求” 즉, ‘모든 일에는 분수가 이미 정해져 있고 화복은 스스로 자기가 구한다’는 것이다. 이 구절은 『명심보감』 〈순명(順命)〉과 〈계선(繼善)〉편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것으로,²⁵⁾ 두 편은 〈천리(天理)〉편과 함께 『명심보감』의 핵심사상이라 할 수 있는 ‘천의 관념(天觀念)’이 강하게 투사된 편명들이다. 더불어 여기서의 ‘천(天)’이란 인간의 선악에 따라 그 행위에 맞는 상벌을 주며 인간의 의지와 바람을 넘어 인간의 운명을 결정짓는 절대적인 존재라 할 수 있는데,²⁶⁾

23) 한문 필사기는 한글 필사기에 뒤이어 나타나고 있으며, 필체 및 사용된 어휘 등을 볼 때 역시 박순호본 필사자에 의해 쓰인 것으로 판단된다.

24) 인용문에 대한 역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고어에 이르기를, ‘모든 일에는 분수가 이미 정해져 있고, 화복은 스스로 자기가 구한다.’ 하였다. 이 책을 보니, 일세의 영화와 쇠락이 모두 나에게서 연유하고 남에게 연유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알겠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부귀한 처지에서는 부귀에 맞게 행동하고, 빈천한 처지에서는 빈천에 맞게 행동한다.’ 하였으니, 현공과 같은 자는 참으로 성인에 가깝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미 하늘의 재주와 속세의 초월함이 있고, 또 어진 스승의 신감을 얻었다. 처음에 요마의 물건에 의해 몹시 슬프고 원통하였으나, 홀연 조화의 자루에 눈을 떴다. 청춘의 어린 나이에 과거에 장원급제하고 출장입상하였으며 공을 세우고 왕작을 받았으니 백대의 현충이요 친고의 탁월함이라. 진실로 사람의 힘으로 이룰 수 있는 바가 아니다. 이는 진실로 분수에 맞는 일이요, 어떤 운수가 존재할 따름이다.”

25) “萬事分已定 浮生空自忙” 『順命篇』4條. “子曰 爲善者 天報之以福 爲不善者 天報之以禍.” 『繼善篇』1條.

이러한 유교적 운명관은 다음과 같이 박순호본의 서사 가운데 직접적으로 표출되어 있다.

각설. 가궁가익할스 현수문의 신세여! …… 한림학스 벼살할 줄 뉘서 아라시며 화불단형이라. 쇼더 신명이 “다지 궁척하다가 나중 영화를 알 지 잇시리오? 그러흔즉 ‘사싱궁달과 부귀빈천이 다 천명팔즈라.(242쪽)

각설. ‘츄신은 불스이군이오 열너는 불경이부라’ 하고 ‘만스분이정’하니 ‘부싱공즈망’이라 홉은 고인이 일너씨니 쇼더의 열형으로 엇지 방덕의게 드럽게 흐리오!(261쪽)

다른 하나는, 넓은 의미에서 ‘천관념’과 상통하는 ‘지족안분의식(知足安分意識)’의 강조라 할 수 있다. ‘천관념’과 더불어 『명심보감』의 주요 사상적 특징 가운데 하나인 ‘지족안분’은 ‘각자의 신분을 준수하며 분수에 만족할 것’ 즉, 유교적 신분제의 준수를 강조한 것이라 할 수 있다.²⁷⁾ 이러한 인식은 위의 인용문 ㉠의 “素富貴行乎富貴 素貧賤行乎貧賤”에서 명시적으로 나타난다. 더불어 『중용』 14장의 일부이기도 한 본 구절은,²⁸⁾ 자연스럽게 주자 성리학의 명분인 ‘춘추대의(春秋大義)’의 기저가 되는 공자의 ‘정명론(定命論)’에 나타난 이른바, ‘군군신신부부자자(君君臣臣父子子)’와도 연결될 수 있다.²⁹⁾ 그런데 주목할 점은 바로 이러한 인식들이 박순호본의 인물 및 서사 전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여타의 영웅소설 작품들과 구분되는 〈현수문전〉 선본(先本) 서사의 가장 큰 특징은 배경 왕조인 송나라가 망한다는 것이며, 멸망의 주된 원인이 천의(天意)를 이동하게 만든 무도한 송 천자에게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한 까닭에 현수문도 천의를 들어 송조의 멸망과 여진의 건국을

26) 『명심보감』의 사상적 특징으로는 ‘天 관념’, ‘知足安分論’, ‘오륜의 도덕’ 등을 들 수 있는데, 본서의 1-3편을 이루는 ‘계선’, ‘천리’, ‘순명’편은 ‘천 관념’에 따른 勸善을 논하고 있다. 성해준, 『《명심보감》 본문 각 편 의 내용 고찰: 天人思想을 중심으로』, 『남명학연구』 제23집(2007), 513-545쪽.

27) 성해준은 〈安分〉, 〈正己〉편을 중심으로 『명심보감』에는 천으로부터 부여받은 분수에 만족하고 천이 명한 각각의 신분상의 생활에 만족해야 한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고 하였다. 성해준(2007), 위의 논문, 535-539쪽.

28) 『중용』 14장의 전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君子는 素其位而行이요 不願乎其外니라 素富貴하얀 行乎富貴하며 素貧賤하얀 行乎貧賤하며 素夷狄하얀 行乎夷狄하며 素患難하얀 行乎患難이니 君子는 無入而不自得焉이니라.”

29) 공자의 정명론에 대해서는 임현규의 논의를 참고하였다. 임현규, 『孔子의 定命論에 대한 일고찰』, 『철학연구』 제118집(2011), 223-247쪽.

받아들인다. 그런데 앞서 살핀 바와 같이, 박순호본은 신 천자의 인물형상의 변화를 통해 서사를 조기 종결함으로써 홍윤표본과는 달리 송조가 유지되는 결말을 맺었다. 더불어 박순호본에서는 신 천자 뿐 아니라 선제(先帝) 및 현수문 그리고 이민족 군신들에 대해서도 홍윤표본과는 다른 크고 작은 변화들이 발견된다.

【홍윤표본】 ‘변신 윤남왕 조승은 돈슈빅비하고 삼가 일장 표를 디송 룡답 하의 올니노이다. 신이 디송을 섬겨 신절을 신네로 일치 아니호으며 불공지시 업스오며 상국을 비판호미 업거날 년”이 직보를 구호시며 또 불공지심이 업거날 스즈를 두 번 죽이시고 탐직호시니 이는 군상의 되 아니오 …… 신이 어든 바 남방 십육주를 돌려드리느니 신은 마치 못호은 일이라. 기과천선호샤 틱즈를 부르시며 정궁을 경디호시며 튕냥을 남용호시고 간당을 물니치시며 인정을 닥그시고 종스를 싱각호샤 치국호쇼셔……’(권지일, 10a-11a)

【박순호본】 이런 고로 승인이아 능지승인이로다. 송제의 명덕으로 엇지 슈문을 몰노보리오마는 일중 불결호심은 다만 군신의 ”논을 일익해 스텐을 근량호이라.(277-278쪽)

위 인용문을 통해 알 수 있듯, 홍윤표본의 선제는 변왕에게 ‘이신벌군(以臣伐君)’을 당할 만큼 부정적인 인물로 설정되어 있다. 이에 비해, 박순호본은 위의 밑줄 친 부분과 같이 선제를 “명덕(明德)”이 있을 뿐 아니라, “덕범문명호 송나라의 승즈신손이 계”송”호샤 덕을 닥까 인지를 취탁호는”³⁰⁾ 밝은 군주라 서술하고 있다. 그러한 까닭에 박순호본에서 선제가 변왕에게 이신벌군을 당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³¹⁾ 그런데 문제는 박순호본의 서사 가운데 나타난 선제의 실상이 기실 홍윤표본의 선제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³²⁾ 즉, 박순호본에서 선제는 행위와는 별개로

30) 박순호본, 276쪽.

31) 수문과 모친 장씨가 헤어지는 계기가 되기도 하는 서사 초반 윤남의 침입은 홍윤표본을 포함한 구활자본, 세책본 등에서 이신벌군의 행위로 상당한 지면에 걸쳐 서술된다. 반면, 박순호본에서 윤남의 침입은 단순한 오랑개의 약탈로 그려지는데 이러한 양상은 대부분의 사건에서 서사적 풍부함을 보이는 박순호본의 일반적인 서술경향에서도 벗어난 것으로 목적성을 강하게 띤 서사 변개라 할 수 있다. 박순호본, 225-227쪽 참고.

32) 이후 서사 전개에서 송 천자는 선본과 같이 서번의 침입에게 패한 후 항복을 주장하던 최성덕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을 절절히 후회하며 항복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 주변에는 간신이 많은 것으로 그려져 인용된 긍정적인 서술들과는 거리를 보인다. 따라서 인용된 선제의 인물형상은 서사에 나타나는 실제 모습과는 다른 것으로 천자에 대한 박순호본 필사자의 인식 혹은 바람을 담아낸 것이라 할 수 있다.

서술자의 서사개입을 통해서만 ‘성군(聖君)’으로 그려진다. 더불어 박순호 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승상이 복지계슈 왈, “폐하 쇼신으로 ㅎ여곰 역명을 면치 못ㅎ게 ㅎ시니 비록 처춘지공이 잇스오느 토지”작으로 신즈를 주실 듯지 업사오니 복원 황상은 전교를 거두시면 용누봉각의 시위지신이 되오련니와 불연이면 일신이 의탁할 곳지 업슬가 ㅎ읍느이다.”(329쪽)

위는 서번과 토번으로부터 송조를 구한 수문에게 송 천자가 자신을 대신하여 송조를 치리하라는 말을 한 이후의 상황을 인용한 것이다. 여기서 수문은 천자의 ‘명(命)’을 ‘역명(逆命)’이라 말하며 극구 사양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는 영웅의 충성심을 강조한 것으로 영웅소설에서 그리 낮은 장면은 아니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 이러한 내용이 흥윤표본 및 여타의 이본들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박순호본은 서사 변개를 통해 송 천자와 수문을 각각 전형적인 ‘성군’과 ‘충신’으로 형상화하는 가운데 군신간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있다.³³⁾

한편, 『중용』 14장에는 “素富貴行乎富貴 素貧賤行乎貧賤”에 이어 “素夷狄行乎夷狄(본디 이적에 처해있으면 이적과 같이 행하라)”는 문장이 나타난다. 이 구절은 비록 필사기에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박순호본의 서사 변개에 상당히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다시 말해, 박순호본에서 송조를 침입한 이민족들은 “강포만 밋어 천위를 거스려 우흐로 신명을 축분하는 기갓탄 오랑키”라 일컬어지고 있는 것이다.³⁴⁾ 이러한 양상은 이민족 장수인 호골대를 “천하의 명장”이라 부르고, 적장인 약대를 죽어서도 나라를 걱정하는 충신으로 묘사하고 있는 흥윤표본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³⁵⁾ 더욱이 박순호본에는 다음과 같이 여타의 이본들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이민족 국가의 왕들을 회화한 서사가 발견된다.

33) 흥윤표본 및 경관본을 비롯한 대부분의 이본에서 천자는 다만 서천과 한중을 주며 수문을 위왕에 봉하고 수문은 잠시 사양하다 황명을 기꺼이 받드는 것으로 묘사된다. 따라서 박순호본에서와 같이 굳이 천자가 자신을 대신하여 수문에게 국가를 치리하라 하고 이를 강력하게 수문이 부정하는 것은 천자는 하늘이 내린 절대적인 존재로 아무리 뛰어난 공적을 세운 신하라 할지라도 그 자리를 넘볼 수 없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이라 하겠다.

34) 박순호본, 283-284쪽.

35) 흥윤표본, 권지사-20b 및 권지삼-20a 참고.

이적의 토왕은 함거의 정신업시 안것다가 변왕과 양평공을 보고 서로 반겨 이러느
결하고 가로되 “이스이의 오릿 보지 못하니 무양하신잇가?” 변왕이 왈, “토왕은 엇지
이곳이 와 계신잇가?” 디왈, “노도 중국 송황이 반하여 디세를 당치못하여 이씨의
드러왔노이다.” 서로 안즈 슈작이 즈약하며 답소 여류하더니 양평공이 왈, “양국
왕상의 언소는 진실노 장크로다! 이곳지 필야 피란쳐온잇가? 슈문의 철농의 갓쳐
안즈 스싱미편이어날 천연이 피란왔노라 하니 가쇼로소이다.”(306-307쪽)

위는 현수문에게 생금된 토번과 서번의 왕이 옥에서 만나는 장면을
인용한 것으로, 여기서 두 사람은 자신들의 처지를 잊고 답소를 나누고
있으며 이러한 모습은 서번의 모사인 양평공에게조차 비웃음을 산다.
이는 이민족 왕들에 대한 회화화를 통해 중화(中華)인 송조를 침범한
이민족에 대한 강한 멸시감을 표출한 것으로, 홍윤표본에서 여진 및
원나라의 왕을 “황제” 혹은 “천자” 등으로 부른 것과는 차이를 보인다.³⁶⁾
다시 말해, 박순호본의 서술자는 서사 변개를 통해 조선 후기의 화이관을
극명하게 표출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핀 바와 같이, 연속적인 왕조교체를 다루고 있는 홍윤표본
의 서사와는 달리 박순호본은 송조가 유지되는 결말을 통해 체제지향형
영웅서사로 회귀하는 양상을 보였다. 더불어 박순호본에서는 유교적
‘천관념’과 ‘지족안분의식’이 서사 전반에서 강조되는 가운데 전형적인
군신관계의 지향과 이민족에 대한 강한 멸시감이 표출되고 있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박순호본은 송조의 멸망과 이민족 국가의 건국
을 ‘천명’으로 보며 “탈화이관을 표방”³⁷⁾하고 있는 선본의 서사에 대한
강력한 이의제기의 산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IV. 맺음말

지금까지의 논의를 간략하게 정리하는 가운데 박순호본 〈현수문전〉의
소설사적 의미와 가치를 밝히는 것으로 논의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선본의 절반정도에 해당하는 사건들로 구성된 박순호본은 결말부에

36) 홍윤표본, 권지사-16b, 25a 참고.

37) 줄고, 『고전소설에 나타난 중국인식 연구: 원·청 배경 작품을 중심으로』, 한국학중앙
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2017), 117-134쪽.

나타나는 “하권의 보소서”라는 구절과 계양춘과 노양춘이 등장한다는 점에서 그간 두 명의 양춘의 활약이 나타나는 ‘하권’이 유실된 결본으로 치부되어 왔다. 그러나 박순호본의 결말부와 필사기 및 내제 등을 살펴보면 본 이본은 그 자체로서 서사가 종결되는 원본일 가능성이 높았다. 더불어 한자어의 빈번한 사용을 비롯한 박순호본의 서술상의 특징들은 본 이본이 한문 지식이 있는 〈현수문전〉 독자에 의해 심혈을 기울여 완성된 이본일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한편, 홍윤표본과의 비교를 통해 살펴 본 박순호본의 서사는 왕조교체 서사가 배제된 가운데 영웅소설의 전형이라 할 수 있는 ‘체제지향형 영웅서사’로 회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더불어 한문 필사기와 홍윤표본과의 인물 및 서사 비교를 통해 본고는 박순호본이 유교적 인식 속에서 강력한 화이관을 표출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현수문전〉은 여전히 중화의식이 만연했던 19세기 초반에 이민족에 의한 왕조교체를 천명으로 보는 시각을 견지하며, 송조의 멸망과 여진 및 원나라의 건국을 서사화해낸 작품이다. 이러한 본 작품의 서사는 조선 후기의 일반적인 정서 및 소설 경향과는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을 만한 것이라 하겠다. 그러한 까닭에 선행연구에서는 〈현씨양옹쌍린기〉를 비롯한 당대 인기 작품들의 서사를 수용한 본 작품의 창작방식을 급진적 서사에 대한 독자 반감을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이해하기도 했다.³⁸⁾ 박순호본의 필사자가 두 명의 양춘을 서사 문면에 내세웠다는 것은 분명 선본의 서사에서 두 사람과 관련된 일련의 사건들이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필사자는 현수문의 죽음과 그의 일생을 요약하는 것으로 본 이본의 서사를 마무리했다. 이는 송조가 유지되는 것으로 서사를 종결하겠다는 필사자의 의지를 분명하게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박순호본의 존재는 19세기를 넘어서도 공고했던 화이관을 보여 주는 가운데,³⁹⁾

38) 이에 대해서는 다음의 연구를 참고하기 바란다. 줄고, 「〈현수문전〉의 창작방식 연구: 大長篇小說 〈현씨양옹쌍린기〉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고전과 해석』 17, 2014, 17(2014), 175-176쪽.

39) 김철조는 『열하일기』의 개정판을 내며 박지원의 손자로 영의정을 지낸 구한말의 박규수(1807-1877)가 조부의 문집을 간행하지는 아우의 건의에 대해 청나라의 연호인 건륭을 썼다는 이유로 ‘노호지고(虜號之稿)’란 비판을 유럽들에게 듣고 있음을 말하며 『열하일기』의 간행을 거절한 일을 제시한 바 있으며, 더불어 본서의 이본들에 나타난 윤색과 왜곡 양상을 정리하는 자리에서는 후대의 이본들이 원본에 제시된 청나라 연호

한글 고소설이 단순한 오락물을 넘어 일종의 논의의 '장(場)'으로써 기능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소설사적 의의와 가치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대신 명나라의 연호를 쓰고 자유분방한 연암의 개성을 몰각시켜 교양 있는 양반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분식(粉飾)한 것을 지적한 바 있다. 김철조, 『열하일기1』(돌베개, 2017), 6-9쪽. 이러한 양상은 조선 후기를 넘어 구한말에도 여전히 화이관에 경도되어 있었던 사회적 분위기와 당대 '인물'에 대한 기대지평이 어떠했는가를 보여준다. 본고는 박순호본의 서술자 역시 이와 유사한 인식에서 작중 서사 및 인물들의 형상을 변개한 것이라 생각한다.

참 고 문 헌

1. 1차 자료

- 〈현수문전〉 박순호 소장 필사본(『한글필사본 고소설 자료총서 49』영인 수록).
〈현수문전〉 홍윤표 소장 필사본.
〈현수문전〉 대영박물관 소장 경판본.
〈현수문전〉 일본 천리대학교 소장 필사본(한국학 중앙연구원 장서각 사본 소장).

2. 단행본

- 김혈조, 『열하일기1』. 돌베개, 2017.
안기수, 『영웅소설의 수용과 변화』. 보고서, 2004.
정충권, 『관소리 문학의 비평과 감상』. 월인, 2016.
조희용, 『고전소설 이본목록』. 집문당, 1999.

3. 논문

- 김수봉, 「현수문전의 영웅소설적 위상」. 『한국문학논총』 제14집, 1993, 177-196쪽.
김용기, 「왕조교체형 영웅소설의 왕조교체 방식 연구」. 『국어국문학』 제153호, 2009, 105-134쪽.
김종철, 「玄壽文傳의 분석」. 『인문논총』 제1권 제1호, 1990, 41-62쪽.
김현정, 「〈현수문전〉의 이본 특징과 수용양상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성해준, 「《명심보감》 본문 각 편의 내용 고찰: 天人思想을 중심으로」. 『남명학연구』 제23호, 2007, 513-545쪽.
임채문, 「〈현수문전〉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임현규, 「孔자의 定命論에 대한 일고찰」. 『철학연구』 제118호, 2011, 223-247쪽.
조해숙, 「〈현수문전〉 이본고: 작품구성 및 주제의 변모양상」. 『한국국어교육연구회 논문집』 제49집, 1993, 59-88쪽.
조희용, 「〈조웅전〉 異本攷 및 校注補」. 『어문학논총』 12, 1993, 41-58쪽.
주수민, 「〈현수문전〉 이본 연구」. 『정신문화연구』 제37권 제2호, 2014, 227-256쪽.
_____, 「〈현수문전〉의 창작방식 연구: 大長篇小說 〈현씨양웅쌍린기〉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고전과 해석』 17, 2014, 147-179쪽.
_____, 「한글 고소설 이본 확산의 일 경향과 그 의미: 〈현수문전〉을 중심으로」. 『고소설연구』 제42집, 2016, 83-109쪽.
_____, 『고전소설에 나타난 중국 인식 연구: 원·청 배경 작품을 중심으로』. 한국학 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18.
_____, 「〈현수문전〉 경판본의 표면적 지향과 이면적 실체」. 『한국고전연구』 제41

집, 2018, 261-289쪽.

주형예, 「동양문고본 〈현수문전〉의 서사적 특징과 의미」. 『열상고전연구』 제15집,
2002, 221-249쪽.

최범호, 「현수문전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6.

국 문 초 록

본고는 박순호본 <현수문전>의 원본 여부와 서술상의 특징들을 살펴봄으로써 본 이본에 대한 연구의 근거를 마련하고, 그 서사적 특징과 개작의식을 통해 박순호본의 의미와 가치를 재조명하고자 한 것이다. 먼저, 박순호본은 결말부에 나타나는 “하권의 보소서”라는 구절과 두 명의 양춘이 등장한다는 점에서 그간 ‘하권’이 유실된 결본으로 치부되어 왔다. 그러나 본고에서 살핀 결과, 박순호본은 온전한 서사를 갖춘 원본으로서 서술상의 특징들로 추정컨대 한문지식이 있는 사람에 의해 내용 전달에 심혈을 기울여 완성된 이본임을 알 수 있었다. 한편, 박순호본의 서사는 연속적인 왕조교체 서사가 나타나는 흥윤표본과는 달리 송조가 유지되는 결말을 맺음으로써 체제지향형 영웅서사로 회귀하고 있는 양상을 보였다. 더불어 한문 필사기 및 흥윤표본과의 서사 및 인물 비교를 통해서 박순호본의 서사에 유교적 인식과 더불어 강력한 화이관이 내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투고일 2018. 12. 20.

심사일 2019. 01. 18.

게재 확정일 2019. 02. 21.

주제어(keyword) 현수문전(Hyeonsumunjeon), 박순호본(Park Sun-ho edition), 서사적 특징(narrative characteristics), 세계 인식(world recognition)

Abstracts

A Study on the Park soon-ho edition of 'Hyeonsumunjeon'

Joo, Soo-mi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meaning and value of Park, soon-ho edition of Hyeonsumunjeon by check whether it is original or not and examine the characteristics feature of narrative. First of all, Park Sun-ho edition was regarded that volume two was missed because of phrase "connected to volume two" and existing two of "Yang-Chun". However, this study shows Park Sun-ho edition is complete version which was written with careful delivery of the contents by the intellectuals of Chinese literature. On the other hand, the narrative of Park Soon-ho edition showed a return to the typical hero novel with maintaining Song's danasty and is different from Hong Yoon-Pyo edition which has continuous change of dynasty. And as a result of reviewing epilogue and comparison with Hong Yoon-Pyo edition, it shows Scribe's Aware of Confucius and China centric view by the various narrative of Park Soon-ho edition.